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정신간호역량, 정신질환자 간호업무 스트레스가 일반 병동간호사의 소진에 미치는 영향

이선미¹ · 윤정숙² · 신성희³

¹의정부 을지대학교병원 간호국, 파트장, ²두원공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³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교수

Effects of Nurses' Attitudes toward Mental Illness Patient, Psychiatric Nursing Competency and Nursing Work Stress on Burnout of Nurses in General Ward

Lee, Sunmi¹ · Yun, Jung Sook² · Shin, Sung Hee³

¹Part Manager, Department of Nursing, Eulji Medical Center, Eulji University, Uljeongbu, Republic of Korea; ²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oowon University of Technology, Anseong, Republic of Korea; ³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burnout of nurses caring for people with mental illness in general hospital wards. **Methods:**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targeting 186 nurses in general wards with more than one year of clinical experience working at three general hospitals in Seoul, Korea.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 21.0. **Results:** The factors influencing burnout were nursing work stress ($\beta=.30, p<.001$), attitude towards people with mental illness ($\beta=-.25, p<.001$), religion ($\beta=-.21, p=.001$), psychiatric nursing competency ($\beta=-.16, p=.016$), experience of nursing for people with mental illness ($\beta=.14, p=.023$), and gender ($\beta=.14, p=.026$), explaining 33.5% of the total variance ($F=16.53, p<.001$). **Conclus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an education program to lower nurses' work stress, to create positive attitude towards people with mental illness, and to enhance psychiatric nursing competency for prevention and mitigation of burnout of nurses caring for people with mental illness.

Key Words: Burnout, Psychiatric nursing, Competency, Attitude, Stress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정신장애의 평생 유병률은 2021년 27.8%로, 성인 4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 이상의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 또한 정신질환자의 85.5%는 심혈관계, 호흡기계, 내

분비계, 신경계 등의 질병을 동반하고 있어 정신질환자의 사망률은 일반인보다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4]. 따라서 정신질환자들은 정신과 병동 외에도 신체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일반 병동으로 입원하거나, 심한 경우 중환자실에도 입원하게 된다[5]. 국내 정신질환자의 일반병동 입원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종합병원 일반병동 간호사의 97.4%가 정신질환자를 간호한 경험

주요어: 소진, 정신간호, 역량, 태도, 스트레스

IRB 승인기관 및 번호: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 [IRB No. EMCS-2019-08-009]

Corresponding author: Shin, Sung Hee (<https://orcid.org/0000-0003-4113-3953>)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26, Kyungheedaero, Dongdaemun-gu, Seoul 02447, Republic of Korea

Tel: +82-2-961-0917 Fax: +82-2-961-9398 E-mail: sunghshin@khu.ac.kr

Received: 22 March 2022 Revised: 20 April 2022 Accepted: 5 May 2022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Derivs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d/4.0/>) If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nd retained without any modification or reproduction, it can be used and re-distributed in any format and medium.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반병동 근무 기간 중 정신간호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은 92.2%가 전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6]. 즉 일반병동에 근무하면서 학부 과정 외 정신질환자와 관련 교육 경험이 없는 상태로 정신질환자를 간호함에 따라 간호업무의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6].

소진은 업무에 대한 만성적인 감정 및 대인관계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장기적인 반응으로 정서적인 탈진, 비인격화, 성취도가 낮아진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7], 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동 간호사의 71.6%가 높은 정서적 소진을 경험하고 있으며, 높은 소진(high-burnout) 정도로 분류되는 의료인의 절단점 보다 간호사 집단의 경우 33.5점으로 훨씬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8].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8개 나라에서 간호사의 소진을 연구한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일본(25점), 미국(22점), 캐나다(20.4점), 뉴질랜드(19.8점), 영국(19.7점) 러시아(15.1점) 독일(14.4점) 아르메니아(8.4점)와 비교해보면[9], 한국 간호사의 소진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간호사는 자신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기대가 충족될 수 없는 상황에서 실망과 좌절을 하게 되면서 소진을 경험하게 되는데[10], 정신질환자 간호는 증상 발견, 치료 예방 및 재활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응급상황에서의 대처까지 다양한 간호 중재가 필요하다. 하지만 일반병동 간호사의 경우 졸업 후 정신간호 교육의 기회가 거의 없어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식 및 간호역량이 부족하고[11], 신체 간호를 정신간호보다 우선 수행하면서 정신간호를 본인의 업무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12]. 이에 따라 정신질환자 간호와 관련된 간호부담감과 업무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6,11,12]. 또한 간호사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소진은 대상자의 정신 증상에 대한 무관심과 정신질환자 간호를 기피하게 한다[13]. 이는 대상자의 치유를 저해하거나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지 못하여 간호업무의 질 향상을 저해하고 사고의 책임을 간호사에게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6]. 따라서 일반병동 간호사의 소진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일반병동 간호사의 정신간호역량,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와 업무 스트레스 및 소진 간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신간호역량은 정신질환자를 간호하는 것에 있어서 사정과 중재, 자원 활용 능력이 통합되어 발휘되는 수행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14], 정신간호 중재 역량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정신간호부담감은 낮아지며[6], 역량과 소진의 영향요인 연구에서 역량이 향상되면 소진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5]. 즉, 일반병동 간호사들에게도 성장발달과 인간관계, 정신역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고, 정신질환자를 이해하고 치료적 활동을 위한 교육과 경험을 통한 간호사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

하다[14,16].

또한 선행연구에서 간호사의 소진에 주요한 요인으로 확인되는 간호업무 스트레스는 근무할 때 발생하는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인 장애를 일으킬 정도로 부담을 느끼는 상태를 말하며[17], 부담감, 긴장감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정신간호를 담당하는 간호사는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모호함'에 스트레스를 받고 소진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10]. 특히, 정신질환자는 때로는 공격적이고, 파괴적이며, 부적절한 소리를 내는 등의 행동들을 하기도 하여, 일반병동에 입원하게 되면 다른 환자들도 위험에 노출되며[14],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간호사는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정신질환자를 간호하는 일반병동 간호사는 자살 예방 환경이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서보다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환자 안전에 대한 책임이 간호사에게 전가되고 있어 정신질환자에 대한 간호부담감이 매우 높다고 보고하였다[12].

지금까지 국내외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간호사의 업무 스트레스는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2,13,18]. 그러나 정신질환자 간호업무 스트레스 및 소진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정신과 병동 간호사, 정신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연구 결과에서 간호업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소진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10,19-21].

이상과 같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정신간호역량, 정신질환자 간호업무 스트레스가 일반병동 간호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정신과 병동 간호사가 아닌 일반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정신질환자 간호업무가 소진을 더 높이는지에 대한 영향요인을 확인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일반병동 간호사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정신간호역량, 정신질환자 간호업무 스트레스와 소진 간 관계를 확인하고 변인들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일반병동 간호사의 소진을 감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병동 간호사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정신간호역량, 정신질환자 간호업무 스트레스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정신간호 관련 특성에 따른 소진의 차이를 확인한다.
- 2) 대상자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정신간호역량, 정신질환자 간호업무 스트레스, 소진의 정도를 확인한다.

- 3) 대상자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정신간호역량, 정신질환자 간호업무 스트레스, 소진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 4) 대상자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정신간호역량, 정신질환자 간호업무 스트레스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일반병동 간호사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정신간호역량, 정신질환자 간호업무 스트레스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서울시 소재 600병상 이상의 3개의 종합병원 간호사 중 일반병동 간호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간호사로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고 연구 참여를 허락한 대상자를 임의 표출하여 설문조사 하였다. 표본 수는 G*Power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표본수를 산출한 결과 양측 검정 시 독립변인 8개, 중간 효과크기 0.15, 유의수준(α) .05, 검정력 .95로, 160명이 산정되었으나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대상자 수 20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이 중 불성실한 설문과 직접 간호 제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간호사와 파트장 등 14부를 제외한 186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여 표본 수 기준에 충족되었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각 도구는 개발자 및 변안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1) 소진

Maslach와 Jackson[9]이 개발한 Maslach Burnout Inventory (MBI)를 Choe와 Jeong[22]이 변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2개 문항이며, 7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소진 경험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원 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6$ 이었고, Choe와 Jeong[22]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4$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3$ 이었다.

2)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는 Madianos[23]가 개발한 ASMI (Attitudes of Severe Mental Illness) scale를 Choi와 Choi[24]가 한국판으로 변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고정관념, 낙관주의 두 개의 영역 1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고정관념은 역

코당한 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원 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9$ 이었고,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시행된 Choi와 Choi[2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8$,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4$ 이었다.

3) 정신간호역량

정신간호역량은 Rutledge 등[14]이 개발한 BHCC (Behavioral Health Care Competency)를 Jang과 Shin[6]이 변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3개 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일반병동 간호사의 정신간호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의 원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8\sim.91$ 이었으며, Jang과 Shin[6]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5$,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91$ 이었다.

4) 정신질환자 간호업무 스트레스

정신질환자 간호업무 스트레스는 Jang과 Shin[6]이 개발한 정신질환자 간호부담감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20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일반병동 간호사가 지각하는 정신질환자 간호업무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개발 당시 Jang과 Shin[6]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4$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90$ 이었다.

4. 자료 수집 기간 및 방법

자료 수집 기간은 2020년 1월 17일부터 2020년 2월 25일까지였으며, 자료 수집 방법은 서울시 소재 6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곳에 직접 방문하여 간호부의 허락을 받은 후 실시하였다. 서면으로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대상자에게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설문지 작성은 약 15~20분가량 소요되었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2019년 10월 을지대학교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EMCS-2019-08-009)의 승인을 받은 뒤 시행되었다. 연구자료 수집 시에 서면으로 작성된 연구목적과 방법을 읽고 동의서를 작성한 대상자에게만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모든 자료는 익명으로 통계 처리가 되어 순수한 학문적 목적을 위한 자료로만 사용되며, 대상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익명으로 처리될 것을 설명하였다. 또한 대상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였다.

6.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정신간호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진의 차이 분석은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다.
- 2)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정신간호역량, 정신질환자 간호업무 스트레스, 소진의 정도는 평균, 표준편차, 최댓값, 최솟값으로 분석하였다.
- 3) 대상자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정신간호역량, 정신질환자 간호업무 스트레스, 소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 4) 대상자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수의 선택방법은 입력(enter)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정신간호 관련 특성에 따른 소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정신간호 관련 특성과 이에 따른 소진의 차이는 Table 1과 같다. 연령은 평균 31.94세로 30세 이하가 86명(46.2%)으로 가장 많았고, 여성이 174명(93.5%), 미혼 대상자가 118명(63.4%)으로 기혼보다 많았다. 또한 종교가 있는 대상자가 95명(51.1%), 대졸 학력이 148명(79.6%)이었고, 직위는 일반간호사가 141명(75.8%), 임상 경력은 1년 이상 5년 미만인 73명(39.3%), 10년 이상 73명(39.2%), 5년 이상 10년 미만 40명(21.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근무부서는 내과계 병동 근무자가 58명(31.2%), 외과계 병동 근무자 53명(28.5%), 중환자실 근무자 29명(15.6%), 간호간병통합서비스 27명(14.5%), 응급실 근무자 19명(10.2%)의 순이었다. 본 연구대상자의 정신간호 관련 특성은 정신건강의학과 병동 근무 경험이 없는 대상자가 154명(82.3%), 정신질환자 간호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175명(94.1%)이었고, 146명(78.5%)의 대상자가 근무 기간 중 정신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Table 1. Differences in Burnout according to Participants' General Characteristics and Psychiatric Nursing Characteristics (N=18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t or F	p-value
Gender	Male	12 (6.5)	3.50±0.59	2.84	.005
	Female	174 (93.5)	4.05±0.66		
Age (years)	< 30	86 (46.2)	3.98±0.64	0.51	.602
	30~39	74 (39.8)	4.07±0.69		
	≥ 40	26 (14.0)	3.95±0.70		
Religion	Yes	95 (51.1)	3.91±0.69	-2.16	.032
	No	91 (48.9)	4.12±0.62		
Marital status	Unmarried	118 (63.4)	3.98±0.67	0.83	.407
	Married	68 (36.6)	4.07±0.65		
Education level	College	24 (12.9)	4.01±0.49	0.02	.985
	University	148 (79.6)	4.02±0.68		
	≥ Graduate school	14 (7.5)	3.97±0.82		
Careers (years)	< 5	73 (39.3)	3.95±0.63	0.61	.545
	5~9	40 (21.4)	4.05±0.75		
	≥ 10	73 (39.3)	4.06±0.66		
Clinical department	Internal medicine ward	58 (31.2)	4.03±0.62	0.77	.549
	Surgical ward	53 (28.5)	4.01±0.63		
	Intensive care unit	29 (15.6)	4.04±0.69		
	Emergency room	19 (10.2)	3.79±0.81		
	Nursing caring integrated service wards	27 (14.5)	4.13±0.71		
Job position	Staff nurse	141 (75.8)	4.04±0.66	1.00	.319
	Charge nurse	45 (24.2)	3.93±0.69		

Psychiatric ward worked experiences	Yes	33 (17.7)	3.84±0.76	-1.72	.087
	No	153 (82.3)	4.05±0.64		
Psychiatric nursing care experiences	Yes	175 (94.1)	4.05±0.65	2.55	.012
	No	11 (5.9)	3.53±0.75		
Psychiatric education experiences	Yes	40 (21.5)	3.97±0.68	-0.53	.594
	No	146 (78.5)	4.03±0.66		
Psychiatric ward work hope	Yes	23 (12.4)	3.89±0.91	-0.95	.344
	No	163 (87.6)	4.03±0.63		
Psychiatric nursing education need	Yes	167 (89.8)	4.02±0.68	0.04	.972
	No	19 (10.2)	4.01±0.59		

M=Mean; SD=Standard Deviation

없다고 응답하였다. 정신건강의학과 병동 근무 희망에 대해서는 163명(87.6%)이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반면, 정신간호 관련 보수교육 필요성은 167명(89.8%)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중복응답으로 보수교육으로 원하는 교육은 치료적 의사소통, 정신질환 간호, 정신과적 응급상황, 정신질환 증상, 정신질환 약물 순으로 응답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일반병동 간호사의 소진 정도는 성별, 종교 유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소진 점수를 비교한 결과, 여자가 평균 4.05±0.66점 점으로 남자 3.50±0.59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2.84, p=.005$). 종교 유무에 따른 소진은 종교가 없는 간호사가 평균 4.12±0.62점으로 종교를 가지고 있는 간호사 평균 3.91±0.69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2.16, p=.032$). 정신간호 관련 특성에 따른 대상자의 소진에서 정신질환자 간호 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55, p=.012$).

2. 대상자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정신간호역량, 정신질환자 간호업무 스트레스 및 소진 정도

연구대상자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정신간호역량, 정신질환자 간호업무 스트레스 및 소진 정도는 Table 2와 같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는 4점 만점에 평균 2.74(±0.39)점으로, 하위영역 평균은 낙관주의 3.00±0.43점, 고정관념 2.60±0.51점이었다. 정신간호 역량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87±0.46점으로, 하위영역 평균에서 사정 역량 3.07±0.60점, 중재 역량 2.80±0.54점, 자원의 활용 역량 2.72±0.66점, 항정신성 약물 권고 2.57±0.86점이었다. 정신질환자 간호업무 스트레스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30±0.51점이었으며, 하위영역 평균은 긴장감 3.69±0.55점, 간호의 불확실성 3.62±0.80점, 이해 부족 3.39±0.53점, 시간 압박 2.88±0.71점이었다. 대상자의 소진 정도는 평균 4.02±0.67점이며, 하위영역 평균은 정서 고갈 4.41 ±1.05점, 비인간화 3.83±1.12점, 자아 성취감 3.68±0.90

점이었다.

3. 일반병동 간호사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정신간호역량, 정신질환자 간호업무 스트레스와 소진 간 상관관계

일반병동 간호사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정신간호역량, 정신질환자 간호업무 스트레스와 소진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소진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r=-.38, p<.001$), 정신간호역량($r=-.28, p<.001$)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정신질환자 간호업무 스트레스($r=.44, p<.001$)와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4. 일반병동 간호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일반병동 간호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에서 차이를 보인 성별, 종교와 정신질환자 간호 경험을 더미 변수로 전환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정신간호역량, 정신질환자 간호업무 스트레스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수의 선택 방법은 입력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먼저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이 1.94로 자기 상관성이 없었고, 공차 한계(tolerance)는 0.76~0.97로 1.0 이하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4~1.32로 10 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특히 잔차 분석 결과 모형의 선형성, 오차항의 정규성, 등분산성의 가정도 만족하였으며, 특이값을 검토하기 위한 Cook's distance 값도 1.0을 초과하는 개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분석의 결과는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병동 간호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회귀 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16.53, p<.001$), 모형의 설명력은 33.5%였다.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정신질환자 간호업무 스트레스($\beta=.30, p<.001$),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beta=-.25, p<.001$), 종교($\beta=-.21, p=.001$), 정신간호역량($\beta=-.16, p=.016$), 정신질환

Table 2. Level of Participants' Burnout, Attitudes towards People with Mental Illness, Psychiatric Nursing Competency and Nursing Work Stress with People with Mental Illness (N=186)

Variable	M±SD	Min	Max	Range
Burnout	4.02±0.67	2.3	5.6	1-7
Emotional exhaustion	4.41±1.05	1.8	6.7	1-7
Dehumanization	3.83±1.12	1.0	6.4	1-7
Self-fulfillment	3.68±0.90	1.5	5.6	1-7
Attitudes towards mental illness	2.74±0.39	1.8	3.8	1-4
Stereotype	2.60±0.51	1.0	3.8	1-4
Optimism	3.00±0.43	1.8	4.0	1-4
Psychiatric nursing competency	2.87±0.46	1.4	4.0	1-5
Assessment competency	3.07±0.60	1.1	4.6	1-5
Intercede competency	2.80±0.54	1.1	4.4	1-5
Recommendation for use of psychoactive drugs	2.57±0.86	1.0	5.0	1-5
Resource utilization competency	2.72±0.66	1.0	4.5	1-5
Nursing work stress with mental illness peoples	3.30±0.51	2.0	5.0	1-5
Time pressure	2.88±0.71	1.3	5.0	1-5
Lack of understanding	3.39±0.53	2.0	5.0	1-5
Uncertainty of nursing	3.62±0.80	1.6	6.0	1-5
Tension	3.69±0.55	1.8	5.0	1-5

M=Mean; SD=Standard Deviation, Min=Minimum, Max=Maximum

Table 3. Correlations among Nurses' Attitude towards People with Mental Illness, Psychiatric Nursing Competency, Nursing Work Stress with People with Mental Illness and Burnout (N=186)

	1	2	3	4
	r (p)	r (p)	r (p)	r (p)
1. Burnout	1			
2. Attitudes towards mental illness people	-.38 (<.001)	1		
3. Psychiatric nursing competency	-.28 (<.001)	.16(.026)	1	
4. Nursing work stress with mental illness people	.44 (<.001)	-.41(<.001)	-.31 (<.001)	1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Burnout of Nurses in General Ward (N=186)

Variable	Categories	B	S.E	β	t	p
Attitudes towards mental illness		-.42	.11	-.25	-3.75	<.001
Psychiatric nursing competency		-.23	.09	-.16	-2.42	.016
Nursing work stress with mental illness people		.39	.09	.30	4.30	<.001
Gender* (ref=Male)	Female	.38	.17	.14	2.24	.026
Religion* (ref=No)	Yes	-.27	.08	-.21	-3.39	.001
Psychiatric nursing care experiences* (ref=No)	Yes	.40	.17	.14	2.29	.023

R²=.357, Adj R²=.335, F=16.53, p<.001

*dummy variable; ref=reference group

자 간호 경험(β=.14, p=.023), 성별(β=.14, p=.026) 순으로 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일반병동 간호사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정신간

호역량, 정신질환자 간호업무 스트레스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여 일반병동 간호사의 정신질환자 정신간호 관련 소진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신간호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연구 결과, 일반적 특성 및 정신간호 관련 특성에 따른 일반병동 간호사의 소진은 여자 그리고 종교가 없는 경우 소진이 높았으며, 정신질환자 간호 경험이 있는 간호사의 소진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정신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남성보다 여성에서 정서적 고갈이 높게 확인된 결과와 유사하다 [20]. 또한 Kim[21] 등은 종교가 있는 경우 소진 정도가 유의하게 낮다고 보고하여, 정신질환자를 간호하면서 심리적인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종교적인 믿음에 의지하여 심리적 편안함을 얻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본 연구 결과와 다르게 결혼상태가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연구에서는 미혼의 경우 기혼보다 직무 소진이 높게 나타나 [18,25,26], 결혼을 통한 정서적 갈등과 대처 그리고 가족지지의 경험이 소진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결혼과 근무경력에 따른 소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추후 반복적인 인과관계 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 94.1%의 대상자가 정신질환자 간호 경험이 있음에도 89.8%에서 보수교육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는데, 일반병동 간호사의 경우 정신간호 관련 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정신질환자 간호에 준비가 되어있지 않고, 그로 인한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 [12] 이러한 경험은 일반병동 간호사의 스트레스와 소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Kim과 Han[16]의 연구에서도 간호사의 근무경력이 높을수록 정신간호 경험이 많아질 수는 있으나 정신간호 교육의 이수 경험 부족으로, 오로지 경험에만 의존하여 간호 수행을 함으로써 오는 부담감을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병동 간호사를 위한 정신질환자 간호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일반병동과 정신건강의학과 병동 간의 연계시스템 확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일반병동 간호사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에 대한 하위요인별 평균은 4점 만점에 낙관주의 3.00점(± 0.43), 고정관념 2.60점(± 0.51)으로, 일반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Jang과 Shin[6]의 연구에서 확인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하위요인별 점수 순위와 일치하였다. Noblett와 Henderson [27]은 정신질환자를 간호했던 경험 중에 간호업무 시 소진되었던 경험이 시간이 지나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을 보고하였는데, 이는 일반병동 간호사가 정신질환과 정신질환자에 대해 긍정적인 신념과 태도를 보이지만 정신질환자를 간호하면서 끊임없는 긴장과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됨에 따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정신과 환자에 대한 마음의 문을 닫게 된다는 지적과 일관되며 [10],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는 교육을 통해 긍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24], 일반병동 간호사의 92.2%가 정신간호 관련 교육 경험이 없다고 보고된 바 있으므로 [6], 일반병동 간호사의 긍정적 태도 변화 모색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신건강 관리 지식 및 기술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일반병동 간호사의 정신간호역량은 2.87점(5점 척도)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한 Jang과 Shin[6]의 3.06점과 Rutledge 등 [14]의 3.45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외와 국내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문화적 차이, 병원의 환경과 간호업무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으로 추정되나 단순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추후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정신간호역량의 하위영역 중 사정 역량이 3.0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원의 활용이 가장 높게 나타난 Jang과 Shin[6]의 연구와 일반병동 간호사가 정신과 병동 간호사에 비해 사정, 중재, 적절한 자원 활용을 포함한 대부분의 간호역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Han 등 [28]의 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정신질환자 간호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94.1%로 많아 정신질환자 증상 인식에 대한 사정 능력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일반병동 간호사의 정신질환자 간호업무 스트레스는 3.30점(5점 척도)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같은 연구 도구를 사용한 Jang과 Shin[6]의 3.39점과 유사한 결과이다. 정신질환자 간호업무 스트레스 하위요인은 긴장감이 3.6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간호하는 동안 폭력을 당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한 긴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병동 간호사는 정신질환자에 관한 편견과 부담감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로 긴장감이 높음을 알 수 있는데 [12], 이를 토대로 일반병동 간호사에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선입견이나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해 발생한 두려움과 공포로 긴장감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병동 간호사의 두려움과 긴장감 해소를 위해 정신질환자의 정신 증상 관리 프로그램 및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연계시스템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일반병동 간호사의 소진은 4.02점(7점 척도)으로 높게 측정되었는데, 예측하기 어렵고 돌발적인 행동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가 일반병동에 입원하면 간호사는 환경적인 장치의 제한으로 대처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12], 이러한 경험이 간호사의 긴장감과 소진을 더 높아지게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향후 일반병동 간호사가 소진을 경험하고, 그중에서 특히 정

신질환자 간호업무가 소진을 더 높이는 데에 영향을 주고 있음에 대해 보다 민감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을 통해 일반 병동 간호사 대상의 소진 관련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정신간호역량, 정신질환자 간호업무 스트레스 및 소진의 상관관계 결과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정신간호역량이 낮을수록 소진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정신질환자 간호업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일반병동 간호사의 소진이 높아졌다. 같은 측정 도구로 비교한 선행 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정신질환자 간호에서는 심리적 증상을 호소하거나 자살, 폭력 행동 등의 예기하지 못한 돌발 행동이 발생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정신간호 중재에 확신이 없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10],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간호사들은 대상자를 설득하거나 의사소통 적용의 어려움으로 부족함과 한계를 느끼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지치고 힘들어하게 된다[10]. 이와 관련하여 You와 Joo[20]의 연구에서는 정신병원 종사자의 과도한 감정노동과 관련된 스트레스 감소와 회복탄력성 증가를 위해 안전요원 배치나 심리 상담 지원 등을 통한 소진감소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 결과 일반병동 간호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정신질환자 간호업무 스트레스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그리고 정신간호역량, 정신질환자 간호 경험, 성별 순으로 확인되었는데, 정신질환자 간호는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형태의 신체적 위협이나 상황에 자주 노출되면서 업무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29]. 따라서 신체적 질환과 정신적 문제를 동시에 가진 대상자를 간호해야 하는 일반병동 간호사의 정신질환자 간호업무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여 소진을 감소시키는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Jang과 Shin[6]의 연구에서 일반병동 간호사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간호부담감이 낮았으며,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Lee[30]의 연구에서도 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소진이 높게 나타나 태도가 소진의 영향요인으로 확인된 본 연구 결과와 같다. Jung 등[12]은 정신질환자의 증상과 정신간호역량의 부족으로 인한 정신간호 부담감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정신질환자에 대한 낮은 간호역량은 간호부담감과 정신질환자 간호 시에 긴장감, 거부감으로 확대되어 일반병동 간호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간호사 자신이 정신간호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정신간호에 대해 어려워하며 보상도 없고 위험하다는 믿음을 가지며 이로 인해 환자 회피에 영향을 미친다[13]. 따라서 간호조직 내에서 정신질환자를 간호하는 일반병동 간호사들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간호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 연구, 실무 측면

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인 요소로 생각되며, 향후 지역과 대상자를 확대한 지속적인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한 600병상 이상의 3개 종합병원 내과 병동, 외과병동, 중환자실, 응급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대상자를 한정하여 편의 추출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병동 전체 간호사에 확대해석하는 일반화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일반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내과병동 간호사의 수가 가장 많았으므로, 추후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을 제외한 다양한 근무부서를 대상으로 반복 연구를 시행하여 일반병동 간호사의 정신간호 관련 소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반병동 간호사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정신간호역량, 정신질환자 간호업무 스트레스의 정도를 파악하고, 소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일반병동 간호사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소진을 낮추기 위한 중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한 연구이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가 낮을수록, 정신간호역량이 낮을수록, 그리고 정신질환자 간호업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종교가 없을수록, 성별이 여자일 경우에서 소진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정신질환자 간호업무 스트레스가 소진을 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반병동 간호사가 정신질환자 간호 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교육을 통해 표준화된 정신질환자 간호의 지식, 기술, 태도를 익힐 수 있도록 하여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의료 환경의 변화를 적용한 일반병동 간호사의 정신간호 관련 소진을 측정할 수 있는 정확하고 실제적인 측정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정신질환자 간호업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정신간호 역량을 증가시키는 영역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소진을 예방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셋째, 소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과 소진을 매개하는 다양한 변인들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소진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변인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대상자의 근무부서, 근무 형태에 따라 정신간호 관련 소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추후 부서별 정신간호 관련 소진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ORCID

Lee, Sunmi <https://orcid.org/0000-0001-7209-784X>
 Yun, Jung Sook <https://orcid.org/0000-0003-1376-132X>
 Shin, Sung Hee <https://orcid.org/0000-0003-4113-3953>

REFERENCES

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survey of mental disorders in Korea 2021. Press release. Sejong Cit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1 December.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39138&page=1
2. Correll CU, Detraux J, De Lepeleire J, De Hert M. Effects of antipsychotics, antidepressants and mood stabilizers on risk for physical diseases in people with schizophrenia, depression and bipolar disorder. *World Psychiatry*. 2015;14:119-36. <https://doi.org/10.1002/wps.20204>
3. Vermeulen KM, Jansen DE, Knorth E, Buskens E, Reijneveld SA. Cost effectiveness of multisystemic therapy versus usual treatment for young people with antisocial problems. *Criminal Behaviour and Mental Health*. 2017;27(1):89-102. <https://doi.org/10.1002/cbm.1988>
4. Jeon KM, Kim SS. The roles of psychiatric nurses for integrated care of peoples with psychiatric illness: Systematic review. *Health & Nursing*. 2017;29(1):39-51. <http://my.ewha.ac.kr/rins/>
5. Weare R, Green C, Olosoji M, Plummer V. ICU nurses feel unprepared to care for patients with mental illness: A survey of nurses' attitudes, knowledge, and skills. *Intensive and Critical Care Nursing*. 2019;53:37-42. <https://doi.org/10.1016/j.iccn.2019.03.001>
6. Jang MY, Shin SH. Care burden for mental illness patients, attitude toward mental illness and psychiatric nursing competency in non-psychiatric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17;26(1):55-66. <https://doi.org/10.12934/jkpmhn.2017.26.1.55>
7. Maslach C, Schaufeli WB, Leiter MP. Job burnout. *Annual Review Psychology*. 2001;52:397-422. <https://doi.org/10.1146/annurev.psych.52.1.397>
8. Kim YJ, Kim CW, Im HB, Lee SY, Kang JH. The relationship of emotional burnout on hospital nursing workload.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9;20(9):93-102. <https://doi.org/10.5762/KAIS.2019.20.9.93>
9. Poghosyan L, Aiken LH, Sloane DM. Factor structure of the Maslach burnout inventory: An analysis of data from large scale cross-sectional surveys of nurses from eight coun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2009;46(7):894-902. <http://dx.doi.org/10.1016/j.ijnurstu.2009.03.004>
10. No JY, Ha YM. Qualitative study on burnout experience of nurses in psychiatric hospital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1. 2019;10(2):1067-1082. <http://dx.doi.org/10.22143/HSS21.10.2.76>
11. Kim BJ. A study on psychiatric nurses and non-psychiatric nurses' attitudes toward mental illness & the mentally ill [master's thesis]. Seoul: Ewha Women University; 2004. p. 1-63. <http://www.riss.kr/link?id=T9540580>
12. Joung JW, Jang MY, Shim JH, Ko YH, Shin SH. Difficulties in caring for psychiatric patient as experienced by non-psychiatric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17;47(1):49-59. <https://doi.org/10.4040/jkan.2017.47.1.49>
13. Reed F, Fitzgerald L. The mixed attitudes of nurse's to caring for people with mental illness in a rural general hospital.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Nursing*. 2005; 14(4):249-57. <http://dx.doi.org/10.1111/j.1440-0979.2005.00389.x>
14. Rutledge DN, Wickman M, Drake D, Winokur E, Loucks J. Instrument validation: Hospital nurse perceptions of their behavioral health care competency.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012;68(12):2756-65. <https://doi.org/10.1111/j.1365-2648.2012.06025.x>
15. Choi JS. Verifying the relationship among areas of worklife, burnout, and competence of case managers in public sector.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ducation*. 2017;40:29-57.
16. Kim SH, Han KS. Influence of symptom awareness and nursing competency on the burden of nursing care for patients with mental illness by general ward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20;29(3):264-72. <https://doi.org/10.12934/jkpmhn.2020.29.3.264>
17. Maslach C, Jackson SE. *Maslach burnout inventory manual*. Palo Alto, CA University of Californi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1981. [https://www.scirp.org/\(S351jmbntvnstj1aadkozje\)/reference/ReferencesPapers.aspx?ReferenceID=950069](https://www.scirp.org/(S351jmbntvnstj1aadkozje)/reference/ReferencesPapers.aspx?ReferenceID=950069)
18. Lim YH, Cho YC. Effects of job stress, fatigue, burnout, and job satisfaction on turnover intention among general hospital nurses.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8;19(6):264-74.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486428>
19. Seo JW, Kang MR, Je NJ.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burnout of psychiatric ward nurses-violence experience, violence coping, social support.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9;20(7):393-405. <https://doi.org/10.5762/KAIS.2019.20.7.393>
20. You JY, Joo JH. The study on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intrinsic-extrinsic motivation and the job satisfaction of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 workers. *Journal of Kore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2019;21(4):167-98.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281945>
21. Kim GH, Kim JY, Limb JR. Medi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empowerment in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burnout in psychiatric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12;21(3):229-37. <https://www.jkpmhn.org/upload/pdf/jkpmhn-21-229.pdf>
22. Choe HY, Jeong NU. Perfectionism tendency, social support, and burnout among counselor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03;8(2):279-300.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368533>
23. Madianos MG, Economou M, Peppou LE, Kallergis G, Rogakou E, Alevizopoulos G. Measuring public attitudes to severe mental illness in Greece: Development of a new scale. *The European Journal of Psychiatry*. 2012;26(1):55-67. <https://dx.doi.org/10.4321/S0213-61632012000100006>
24. Choi GY, Choi EJ. Attitudes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toward mental illnes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15;24(2):107-15. <https://www.jkpmhn.org/upload/pdf/jkpmhn-24-107.pdf>
25. Park SJ, Kim JW. Influence of humanitarian knowledge and occupational stress on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of clinical nurs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9;20(11):348-60. <https://doi.org/10.5762/KAIS.2019.20.11.348>

26. Ahn JY, Eun Y. The effect of nursing competence on patient-centered care among nurses caring for patients with chronic disease: The mediating effect of burnout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nursing work environment.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021;33(2):134-44.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550212>
27. Noblett J, Henderson C. Attitudes and stigma held by healthcare and mental health care professionals towards people with mental illness. *Mental Health Today*. 2015;Jan-Feb:24-27.
28. Han JW, Lee HN, Woo HY. A study on behavior health care competency between psychiatric ward nurse and general ward nurs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6;17(9):188-195. <https://doi.org/10.5762/KAIS.2016.17.9.188>
29. Hwang JW, Bae JY. Influence of mental health nurses' moral distress and job satisfaction on turnover inten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17;26(4):325-32. <https://www.jkpmhn.org/journal/view.php?number=82>
30. Lee JS. A study on the influence on the attitude towards terminal care and death awareness of the nursing staff in nursing homes for the elderly [master's thesis]. Asan: Hoseo University; 2015: p1-86.